작가의 탄생과 양성 –영 · 미국의 경우

김 성 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 |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 |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회장

영 · 미의 작가 탄생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작가는 어떻게 양성되고 탄생되는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어권 국가들에는 신춘문예나 신인문학상 제도, 또는 원로작가의 추천제도가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작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써 본 다음, 출판사에 창작원고를 보내 채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지망생들은 출판사(장편일 경우)나 잡지사(단편일 경우)에 원고를 보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운이 좋아 발탁되어 장편소설이 출간되거나 잡지에 단편이 실리면 비로소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지만, 물론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에 속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 역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 채택되어 작가가 되었는데, 이후 그 출판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었다.

작가 지망생들 중에는 조앤 K. 롤링처럼 출중한 문장력이나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출판사나 잡지사 편집인에게 발탁되고 또 이후 작가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시도와 좌절 끝에 결국 작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글이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닌, 엄격한 글쓰기 훈련을 거쳐 고도로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쓰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는 영미 전통에서 작가는 결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일단 작가가 되어도 세계적인 유명작가로 명성을 얻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영 · 미 출판사에는 날마다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원고가 쏟아진다. 설혹 투고한 원고가 편집자들에게 채택되어 연락이 온다고 해도 첫 원고를 그대로 싣는 법은 없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수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편집 지시가 뒤따르는 것이 상례이다. 예컨대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원고를 처음 출판사에 보냈을 때, 출판사는 이를 동화로 간주해 분권 출간을 권했고, 톨킨은 못마땅

미국은 학술논문에는 원고료를 주지 않지만, 창작에는 언제나 고료를 지급한다.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으로 급여를 받는 학자와는 달리, 작가들은 창작이 곧 직업이며 주 수입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병아리 작가들은 고료로 지급된 수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했지만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헨리 밀러(Henry Miller) 역시 『북회귀선(The Tropic of Cancer)』을 미국의 출판사들이 거절하자, 파리의 도색출판사 오벨리스크에서 출간했는데, 이후 그 소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 출판사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 덕분에 오벨리스크는 고전적인 순수문학작품을 출간한 최초의 도색출판사가 되었다. 『율리시즈(Ulysses)』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도 자신의 처녀작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1906년 런던의 한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로 했으나, 출판사 측에서 개작을 요구해 우여곡절 끝에 1914년에야 겨우 출판되었다.

영 · 미 작가의 양성은

영 · 미 출판사의 편집인들은 대개 문학박사들이며, 막강한 편집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저자들과 상의해서 원고를 수정하고 편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원고를 준비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빛을 보고, 한 사람의 작가가 태어나는 것이다. 특히 유명 출판사에 작품을 투고했을 경우, 출판사의 명성 때문에 작가로 발탁되는 기회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 지망생들은 대학시절 『대학신문』에 단편이나 수필을 발표하기도 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에도 짧은 글을 투고해 채택되는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 후에 유명해진 작가들은 대개 그와 같은 습작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미국은 학술논문에는 원고료를 주지 않지만, 창작에는 언제나 고료를 지급한다.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으로 급여를 받는 학자와는 달리, 작가들은 창작이 곧 직업이며 주 수입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병아리 작가들은 고료로 지급된 수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대학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국문과와 창작을 배우는 문예창작과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국문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작을 권유하지는 않는다. 창작을 하려는 학생들은 국문과가 아닌, 문예창작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작가로서 문명을 떨치게 되면 국문과 교수가 되기 쉽다). 그래서 문예창작과가 따로 없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작가수업을 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저 본인이 노력해서 신춘문예에 응모하거나 문예지의 신인상 모집에 응모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대학의 문예창작과들이 없어지고 대신 '문화콘텐츠학과' 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반면, 미국대학 영문과(우리의 국문과)에는 '창작(Creative Writing)' 이라는 과목이 있고 영문과 교수들 중 현역작가들이 그 과목을 담당해 수강생들에게 작가수업을 시킨다. 예컨대 필자가 공부했던 뉴욕주립대(버펄로) 영문과에서는 소설가인 레이먼드 페더만(Raymond Federman)과 시인인 로버트 크릴리(Robert Creeley)가 창작과목을 가르쳤는데, 주로 실제로 창작을 시켜보고 고쳐주며 토론하는 워크숍 형태의 수업이었다. 미국대학 영문과에서는 또 늘 유명작가들의 작품 낭송회나 초청강연을 주최하기 때문에 작가지망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많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데, 그들과의 만남은 예비 작가들에게 좋은 자극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미국대학 영문과에는 또 '창작 프로그램(The Writing Program)' (뉴욕주립대나 브라운대)이나 '창작 세미나(The Writing Seminar)' (존스 홉킨스대), 또는 '작가 워크숍(The Writers' Workshop)' (아이오와대) 같은 이름의 창작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대개 저명한 작가들로서 영문과 교수를 겸하게 된다. 예컨대 하이퍼픽션의 대가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는 브라운대학의 창작과정 주임교수이며, 포스트모던 소설의 대가 존 바스(John Barth)도 은퇴하기 전까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창작세미나 주임교수였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훈련받다가 주임교수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는 학생들은 저명작가인 교수에 의해 간혹 출판사에 추천되기도 한다.

1960년대 후반 리처드 브라우티건(Richard Brautigan)이라는 작가지망생은 『미국의 송어낚시(Trout Fishing in America)』(1967)라는 특이한 소설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좌절하다가, 당시 영향력 있는 작가였던 커트 보네것(Kurt Vonnegut, Jr)의 추천으로 자신의 처녀소설을 겨우 출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1960년대 대학생들이 애독하는 바이블이 되어 미국문단과 출판계를 놀라게 했다. 작가들 중에는 이렇게 우연히 발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들은 피나는 습작기간을 거치며 작가수업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이오와대학의 '작가 워크숍' 출신으로 유명한 작가는 『순교자(The Martyr)』로 잘 알려진 재미교포작가 리처드 킴(Richard E. Kim)이다. 『순교자』는 그의 창작 프로그램 석사학위 논문(M.F.A.)이었는데, 이처럼 미국대학의 창작프로그램에서는 창작물을 학위논문으로 인정해준다. 오늘날 아이오와 대학의 '작가 워크숍' 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작가들을 초청해 몇 달 동안 같이 지내게 하며 작품 낭송회 등 문학적 행사를 통해 친교를 나누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작가들도 매해 참석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미국학생들은 학교에서 낭만주의 시 암송해

한국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시를 읽지 않는다. 그래서 시집은 거의 팔리지 않고 심지어는 서점에 진열되기도 힘들 만큼 인기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시인 지망생보다는 소설가 지망생들이 훨씬 더 많고, 소설가 중에도 요즘에는 SF나 판타지 작가 지망생들이 많다. 아마도 시대적인 요청 때문일텐데, 특히 출판사에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 스티븐 킹이나 존 그리샴, 톰 클랜시, 로버트 쿡, 마이클 크라이튼 같은 작가들에 대한 대우나 인세는 가히 천문학적이며, '반스 앤 노블' 같은 대형서점에는 그런 유명작가들의 코너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학생들은 학교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외우고, 낭만주의 시를 암송하거나 낭송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도 곧 잘 셰익스피어나 유명한 시를 암송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곧 미국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문학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화나 컴퓨터 게임의 홍수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하지 않은 작가 지망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 소수의 작가지망생들에 의해 문학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번창해나가게 될 것이다.